

Ethylene, 2004년까지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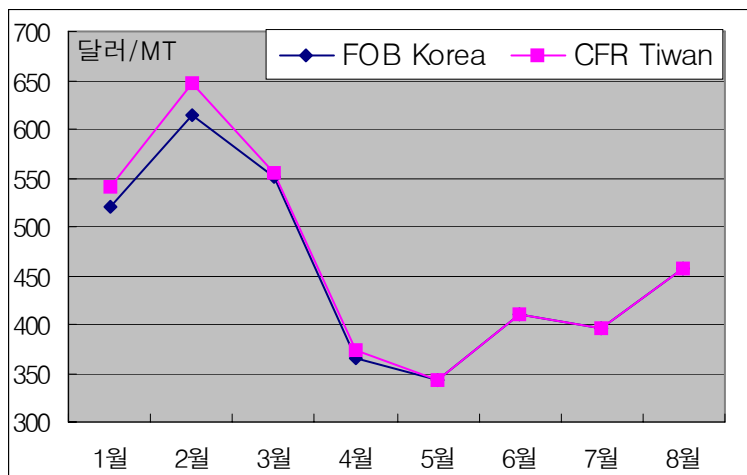
Ethylene 수요증가 따라 가격상승 ... 병산제품 마진율도 유지

9월 둘째 주에 FOB Korea 톤당 475달러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Ethylene 가격이 2004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thylene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Ethylene 가격상승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Ethylene과 Propylene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수급에 의한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hylene 생산기업들이 대부분 자체 수요물량 조달형태로 자가소비하지 않는 석유화학기업은 여천NCC가 유일한데, 여천NCC는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NCC 부문 통합회사로 한화석유화학 및 대림산업과 1999-2025년까지 공급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호폴리캠, LG석유화학, LG-Caltex정유에도 Ethylene을 공급하고 있다.

Ethylene 가격추이(2003)



Ethylene 국내가격은 FOB Korea 가격과 CFR Tiwan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데, Ethylene 가격은 2003년 1월 FOB Korea 톤당 520달러, 2월 615달러로 상승했으나 3월 551달러, 4월 365달러, 5월 343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6월 410달러로 소폭 상승했고 7월 396달러, 8월 458달러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Ethylene은 NCC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이윤을 올리던 시절에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보다 톤당 150달러 높아 150달러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Propylene 및 Butadiene 등 병산제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Ethylene 생산기업은 여천NCC, 현대석유화학, SK, 호남석유화학, 삼성Atopina, LG석유화학, 대한유화 등이 총 56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Ethylene 수입 7만9000톤, 수출 14만4000톤을 기록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9/30>